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3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제 32호)

e - 날씨 이야기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3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 (제32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염 속 일상 지키기
- 07 / 기후변화 극복,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서부터
- 09 / 늘어나는 캠핑족, 야간에 강해지는 집중호우 대처법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2 /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1 / 8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5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37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38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3년 8월 31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이지훈(예보과), 허자윤(관측과), 정영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효원(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수정(예보과), 박진주(예보과)

박형진(예보과), 백은희(예보과), 안태건(관측과), 오숙영(예보과), 윤자인(기후서비스과)

이은영(기획운영과), 이성은(기후서비스과), 이정섭(관측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조현겸(관측과), 최유미(관측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을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염 속 일상 지키기

지구온난화가 심화함에 따라 폭염, 열대야, 호우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심한 더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일이라고 한다. 한반도에 폭염을 발생시키는 기단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다. 장마가 시작되면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부근으로 확장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날 수 있다.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한 상태에서 상층으로 티베트고기압이 발해만 인근에 중심이 위치하는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기도 한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간한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2000~2019년) 폭염일수는 전국 평균 연간 8.8일이다. 그러나 21세기 후반에 이르면 저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24.2일,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70.7일로 지금보다 3~9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1세기 후반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날이 대구를 기준으로 매년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열대야 역시 2.8일에서 31.7일로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기준으로서는 일 년에 60.9일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폭염으로 인해 비정상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건강, 농축산업, 교통,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타나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 예일대 산림환경대학원 손지영 박사팀은 우리나라 대도시 7곳에서 여름철 기온과 사망자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폭염이 사흘 정도 지속되면 사망자가 최대 13.5%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하종식 박사는 서울의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상과 사망통계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기온상승의 사망 발생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했는데, 역치기온(고령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기온)이상에서 일 평균기온 1도 상승은 2.9%의 일 사망자 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폭염 피해는 국민이 폭염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시기에 가장 위협적인데, 이 경우 폭염은 초과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1994년 여름, 부산에는 폭염이
평년보다 약 20일 정도 이른 7월 상순에
나타났는데, 7월의 사망자를 파악해 보니
약 109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하였다.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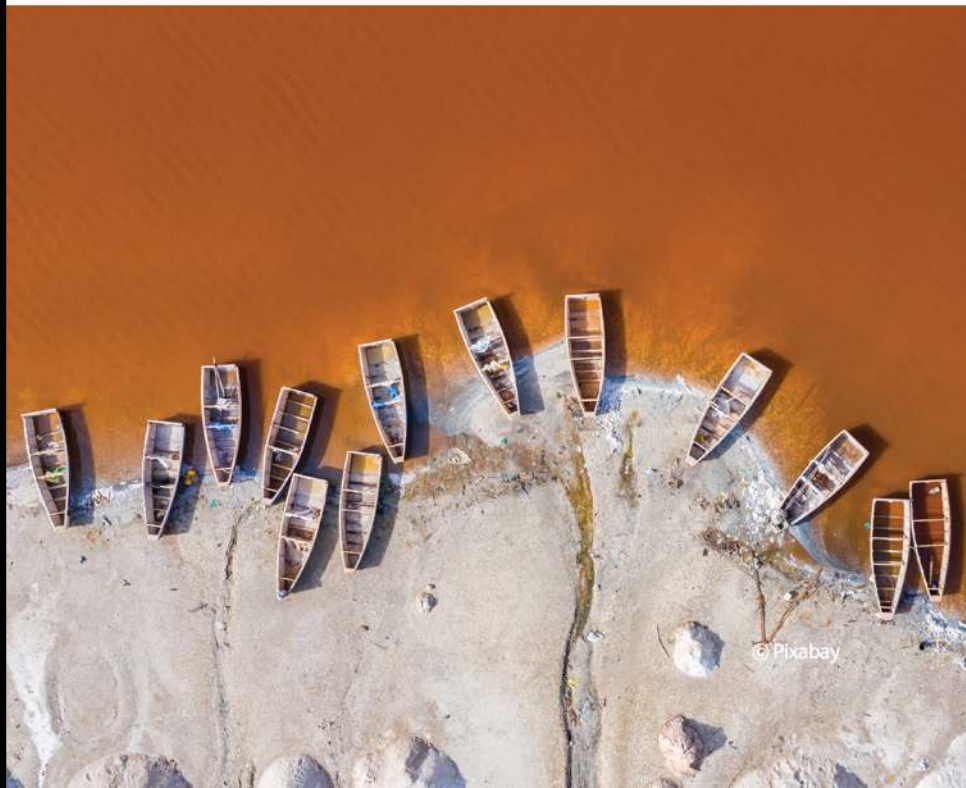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한 일사와
고온 때문에 최근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398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한다. 한편,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
냉방 수요가 급증하며, 이는 곧 전력 소비
및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폭염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환자, 신체 허약자
등은 특히 외출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현기증과 같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곧장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온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온도를 너무 낮추면 냉방병이
생길 수 있으니 실외와의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시켜야 한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새롭게 마련

기상청은 실질적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새롭게 마련하여 정식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만 고려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인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실제로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8월에는
폭염특보 발표 횟수가 늘고 상대적으로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하여, 실효성 높게 폭염 피해 예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폭염특보 개선으로 우리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상청장 기고문 기후변화 극복,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서부터

우리는 현재
신생대 제4기 홀로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현재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 홀로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1만 17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의 지질시대로, 2008년에 지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오존홀 등 인간이 만들어 낸 물질이 지구 환경에 불가역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발견을 시작으로, 인류가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켜 6차 대멸종을 불러오는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식량 생산을 위한 엄청난 양의 질소 비료 사용,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축적, 동물의 가축화, 공장식 축산 등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연간 2억 톤의 플라스틱 소비 등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 지층에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홀로세 초기인 만여 년 전에는 척추동물 중에 야생동물이 99.9%, 인간과 가축이 0.1%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야생동물이 3%만 남아 인간이 32%, 가축이 65%를 차지하게 됐다. 지구상에서 야생은 소멸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 뿐 아니라, 인간 활동은 결국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 승인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전지구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 상승했으며, 배출이 지속되면 근미래 (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2050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기후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환경부는 2019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137만 톤 중 87.2%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했고 세부적으로는 공공전기 및 열 생산이 전체의 35.5%였다고 발표했다. 결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시스템 전환과 전국민적 참여를 통한 전력수요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과거와 현재의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작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스테이션 이용, 차량 공유업체 앱에서 무공해차대여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텀블러 등 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 4가지 항목을 확대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24억 5천만원이던 지급 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일상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왜 어려울까? 에너지는 추상적이고,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능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에너지 절감은 어떤 에너지 소비 기기를 선택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10%까지 돌려주는 자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 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5인 이상 대가족, 3자녀 이상, 출산 3년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상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왜 어려울까?
어떤 에너지 소비기기를 선택하는가에서부터 시작

우리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대하는 자세는 '자포자기'가 아닌,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생활 속 기후행동은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 행동들이 모이면 결코 작지 않고 국가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기상청은 기후위기를 감시,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하고 상세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감시, 예측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후행동에 대한 국민적 연대와 확산을 이끌고자 노력할 것이다.



늘어나는 캠핑족, 야간에 강해지는 집중호우 대처법

올해 장마철의 특징은?
강하고 많은 비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간절해지는 시기이다.

태양이 내뿜는 강렬한 열기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으며 온통 뜨거움으로 가득한 요즘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다.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위에서 충돌하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 많은 재산피해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장마철의 특징은 야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

장마철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는 야간에 더욱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지난해 8월 8일 강남구 116mm/h, 8월 14일 부여 110.6mm/h의 기록적인 폭우는 모두 해가 진 뒤에 발생했다.

그렇다면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상으로부터 1~2km 부근에 제트기처럼 빠른 공기의 흐름이 야간에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공기의 흐름은 다량의 수증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집중호우를 내리게 한다. 두 번째는 밤이 되면 더 습해져 강수 구름 발달에 유리해진다.

최근 여름철 강수 특성을 보면 장마철이 지난 후에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름철 우리나라 날씨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에 영향을 받는데,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더 많이 포함되면서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커졌다. 장마철이 아닌 한여름에도 언제든지 야간에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량의 수증기가 야간에 강화된 하층의 공기 흐름과 높아진 습도와 만나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야간 게릴라성 호우'라고 한다. 야간에 내리는 국지성 호우는 언제 어느 지역에 내릴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골짜기 주변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2020년 689만 명, 2021년에는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캠핑인 차박이 20~30대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고, 차량과 연계해서 텐트를 치는 오토캠핑도 일반화되었다. 여름철 우중 캠핑은 빗소리의 감성에 젖어드는 낭만이 있지만, 야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엔 유명 캠핑장을 예약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안전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안전상 위험하며 특히 야간에 내리는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하다. 강가나 천변, 다리 밑에서 캠핑을 할 경우,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만 내려도 유량이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폭풍 쪼는 무더위로 잠이 오지 않는 열대야에 시원한 산골짜기 주변에서 캠핑을 하는 경우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골짜기 범람에 취약하다.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최신 기상정보 실시간 확인

기상청은 예보를 통해 사전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리며, 예상치 못한 강수에 대해서도 기상정보, 선제적 호우특보, 기상속보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캠핑을 간 지역에 갑작스레 비가 내릴 경우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최신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강우 강도와 비구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을 참고한다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겠으며, 기상청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21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3. 3. 23.

호국보훈의 달 맞이 현충원 묘역정비 사회공헌활동

대전지방기상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묘역정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대전청 봉사동호회인 사랑나눔회 회원과 활동에 자원한 직원까지 총 14명의 직원이 101, 106, 107 묘역을 담당하여, 약 1000개의 묘비를 정비하였다. 묘비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묘비에 새겨진 존함과 비문을 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2023. 3. 14.

대전지방기상청 직급별 간담회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6월 한 달간 9급부터 6급, 공무원까지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장과 소속직원, 그리고 같은 직급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박경희 대전청장 부임 이후 직원들과의 첫 간담회였다. 간담회를 통해 서먹한 분위기를 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업무와 고충들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3. 6. 5. ~ 9. 30.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활용 폭염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 시범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온열질환위험이 크고 문자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의 정보전달 문제를 극복하고자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성중심의 폭염 영향예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마을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등 충청남도 4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약 2,000명의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로 추진되는 시범운영 서비스를 통하여 농촌 어르신들의 기상정보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폭염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2023. 6. 7., 6. 20.

녹도 파고부이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현장방문



대전지방기상청은 작년 ‘찾아가는 해양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녹도 파고가 여객선사에서 실제 운항할 때 느끼는 파고보다 낮은 거 같아 항로 근처로의 이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여객선사와 보령운항 관리센터, 보령해경과 어업인연합회, 시청 관계자를 2차에 걸쳐 현장 방문 하였다. 충남남부앞바다파고 분석 결과 공유 및 녹도 파고부이 관측 적정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요구사항의 원활한 해결과 더불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2023. 6. 8.

대전지방기상청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1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들의 개인별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기상가족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지킴이는 신장과 체중, 체성분과 골격근, 지방 등을 분석하는 체격검사와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을 테스트하는 체력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검사와 측정을 마치면 개인별 체력인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번 1차 체력 인증 결과, 3명의 직원이 1등급, 2명의 직원이 2등급을 부여받았다.



2023. 6. 9.

2023년 금강유역 홍수 안전 실무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홍수예보 관계기관과 소통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기 대응능력 강화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강유역 홍수 안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홍수기 기간동안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유기적 소통 및 운영 방법에 대해 협의하였다. SNS 소통방을 통한 실시간 자료제공 및 위험기상예상시 사전 1:1 직접소통을 통해 홍수기 기간뿐만 아니라 방재대책기간 중 홍수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2023. 6. 13., 8. 31.

대전지방기상청 찾아오는 문화교실 1, 2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찾아오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차로 10명의 직원이 각자 다양한 색깔의 가죽을 골라 직접 바느질하고 편칭을 하며, 나만의 카드지갑을 만들어보는 가죽공예 시간을, 2차로는 15명의 직원이 좋아하는 글귀를 직접 손으로 적어보고, 멋지게 적은 것을 플라워액자와 부채로 만들어보는 캘리그래피 시간을 가졌다. 4차까지 계획되어 있는 문화교실을 통해 직원들이 심리적 여유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 6. 25. ~ 7. 23.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 지상 · 고층 특별관측 수행

대전지방기상청은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서천군 장항항 일대에서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친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 지상 및 고층 특별관측을 수행하였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에 의한 강한 강수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풍향, 풍속, 기압, 기온 등 지상관측과 레원존데를 활용한 연직 고층관측을 실시하였다. 야간까지 계속되는 특별관측 수행으로, 필요한 위치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예 · 특보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관측장소 지형특성 분석을 위한 입체영상 시범서비스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지점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여 관측자료 분석역량 및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측장소의 입체영상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2023. 6. 29.

관측장소 지형분석을 위한 입체영상 시범서비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장소의 지형 특성 분석을 위한 입체영상 시범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였다.

관측장소 상공에서 기상드론으로 촬영한 360° 파노라마 영상을 VR로 구현·제공하며, 관측지점에 대한 정보(위·경도 및 고도, 관측장비 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웹서비스이다. 입체 영상 활용을 통해 우리 지역의 지형 특성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예보관 등 수요자 환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지점(10지점): 천안, 세종전의, 정안(공주), 부여, 청양, 대전, 오월드(대전), 세종, 세종고운, 북격렬비도



2023. 6. 29.

충남권 관측기관 기상관측표준화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나라 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상관측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관계기관의 2023년도 관측시설 환경개선 및 구축사항 등을 점검하고,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방안과 관측메타정보시스템 관리 준수사항 등을 논의 하였다.

관계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종사자의 업무역량 향상과 기관 간 소통을 통한 협업 관계를 강화하여 공동활용 가능한 지자체 관측자료 품질 개선과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충남권 위험기상 알림

오늘(13일) ~ 모레(15일) 긴 시간 강하고 매우 많은 비

13일 저기압 강수



강수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남권북부 중심 강한 강수

14~15일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



동서로 긴 비구름대 정체, 지속적이며 많은 비
→ 강수량 남북으로 지역차 큼
→ 강수집중구역 변동성 있음

※ 13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 예상

강수 시간과 예상 강수량은? ※ 13일 11시 예보 기준, 이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 모레(15일)까지 충남권 100~250mm(많은 곳 400mm 이상)
- '충남권북부'는 13일 저기압에 의한 강수와 14일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 모두 영향을 받는 지역
- '충남권남부'는 14~15일 정체전선에 의해 매우 강한 비 영향을 받는 지역

강수 집중시간과 지역은?

- 오늘(13일) 밤부터 모레(15일) 오전 사이
충남권에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한 비 예상

호우 특보 현황(13일 11시 현재)



▶ 주의보: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

호우 특보 시나리오(13~15일)



▶ 정체전선 영향으로 15일까지 호우특보 이어질 가능성 큼

유의사항

-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니 산사태 및 낙석 유의
-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한 저지대 및 해안가 침수와 하천 범람 유의
- 하수도 및 우수관, 배수구 등 물 역류 대비, 농경지 침수 및 농수로 범람, 급류 유의
- 천변 또는 지하차도 고립,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 등 재산 및 인명 피해 유의
- 이번 주 정체전선에 의해 많은 비 예상되니 최신 예보와 기상 정보 참고

2023. 7. 1.

위험기상정보 전달력 강화를 위한 「충남권 위험기상 알림」 서비스 제공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위험기상정보를 가독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7월부터 ‘충남권 위험기상 알림’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였다. 「충남권 위험기상 알림」 서비스는 대전·세종·충남의 예보 중점사항과 예상강수량, 특보 등 위험기상정보를 한눈에 보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하여 방재 관계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를 통해 위험기상정보의 전달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위험기상 인지와 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7. 3.

지역 중학생 대상 기상관측차량 소개 및 관측업무 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유성구와 함께 키워가는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과 연계하여, 지난 7월 3일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소개하고, 직접 고층기상관측 업무 수행과정을 시연하는 등 관측업무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미래 인적자원들의 기상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기상관측차량 홍보를 통한 국민공감형 소통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23. 7. 3.

대전 · 세종 위험기상 분석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위험기상에 대한 상세 연구와 지형 분석을 통해 예·특보 발표 능력을 향상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대전과 세종지역에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위험기상(호우) 29건에 대한 통계분석과 기압계 분석, 호우를 유발하는 기상인자에 대한 공통 요건을 분석하여 위험기상 모식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한 기상관측 지점과 주변 지형을 상세 분석하는 지역 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대전 · 세종 지역의 특화된 예보기술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2023. 7. 10.

폭염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증가에 따라 폭염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운영하였다.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대응 요령안내와 폭염대응 물품을 제작해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정례적인 소통·협업 추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 7.10. ~ 7. 28.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름철 장마 기간 집중호우 지역의 관측장비를 점검하였다. 관측시설의 파손 여부, 통신·전력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센서 내 이물질 협착 등을 점검하였으며,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무인기상관측소의 냉방기 점검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남은 여름철 방재 기간동안 장비 장애 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기대해본다.



2023. 7. 12.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약체 실무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하여 대전지방기상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약체」(이하 '기후협약체') 실무협의회를 7월 12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10월에 있을 정책협의회 추진 방안과 기후변화교육의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곧 정식 운영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전문해설사와 함께 둘러보고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협약체 활동을 통해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기후변화 이해도 향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3. 7. 21.

대전지방기상청, 폭염 피해 예방 생수 나눔 참여

대전지방기상청은 7월 21일 대전 대덕구 일원에서 폭염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생수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연탄은행과 함께 생수 나눔뿐만 아니라 선풍기 조립을 지원하고, 폭염정보 활용방법과 행동요령 등도 전달했다. 이번 활동으로 올여름 무더위에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폭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2023. 7. 25.

지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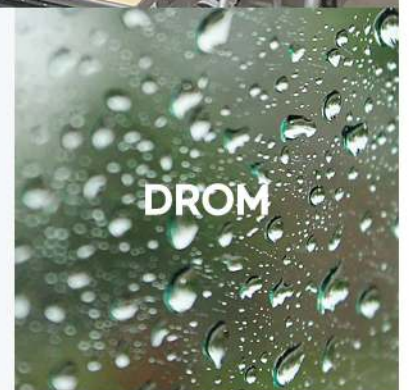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관할 지역 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관을 대상으로 적응대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서비스를 설명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계획 절차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원 예시 등을 안내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023. 7. 25. ~ 8. 31.

2023년 여름방학 기상 · 기후 체험교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2023년 주니어닥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 '아기여우 여울이의 기후여행' 음성 동화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고,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뽕뽕보 초코파이와 구름은 어떤 사이일까'라는 주제로 구름 발생 원리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과학기술 소외계층 특별 운영 시간도 포함하여 평소 기상·기후 과학을 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도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23. 8. 1.~2., 8. 17.~18.

도시 폭염 · 열대야 분석 지원을 위한 집중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와 협력하여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발생 시 청주시 사직동 일원에서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지상 집중관측을 수행하였다. 청주시 도심과 교외 지역의 비교관측을 수행하여 도시 열섬 효과 등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도시 숲 조성 개선 효과 분석을 지원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방안 연구에 기여하였다.



2023. 8. 8.

농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주시 재해방재단과 협업하여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공주 산성시장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생수, 쿨토시, 부채 등 열 피해 예방 물품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농촌 어르신들과 폭염에 고생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폭염대비 행동 요령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위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8. 11.

대전지방기상청 연구모임 「충남 예보기술 업사이클링」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2020년 6월부터 충남 예보기술 업사이클링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예보기술 업사이클링 연구모임에서는 ‘지역 연구자료 통합 관리, 다각적인 연구 수행(Update)과 대내외 기술교류를 통한 예보기술 전문성 확보(Upgrade)’라는 목표에 걸맞게 지역맞춤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도 기상청 예보기술발표회에서 아산만 국지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올해는 카이스트와 기술교류를 통해 대전청 자체 예보관 분석지원 시스템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대전청 연구모임 ‘충남 예보기술 업사이클링’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2023. 8. 29.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손으로 직접 가슴을 압박하는 심폐소생술(CPR)과 청사 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배운 것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육문화개발원 안전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한 이번 교육을 통해 대전청 직원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전체 극값 및 계절관측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보령	3위 30.9℃	2023. 8. 8.	8월 극값 2위
	서산	5위 30.5℃	2023. 8. 8.	8월 극값 3위
	세종	1위 30.2℃	2023. 8. 8.	8월 극값 1위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부여	2위 34.6℃	2023. 6. 19.	6월 극값 2위
	보령	3위 32.4℃	2023. 6. 19.	6월 극값 3위
	서산	5위 33.3℃	2023. 6. 19.	6월 극값 5위
	홍성	2위 32.8℃	2023. 6. 19.	6월 극값 2위
	세종	3위 33.3℃	2023. 6. 19.	6월 극값 3위
	세종	5위 35.0℃	2023. 8. 4.	8월 극값 4위
	세종	1위 35.9℃	2023. 8. 6.	8월 극값 1위
	세종	3위 35.4℃	2023. 8. 7.	8월 극값 3위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서산	3위 26.7℃	2023. 8. 8.	8월 극값 3위
--------------------------	----	----------	-------------	----------

계절관측	매미	초성(작년과 같음, 평년대비 20일 빠름)	2023. 6. 19.
	코스모스	개화(작년대비 35일 빠름, 평년대비 32일 빠름)	2023. 8. 1.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부여	2위 272.5mm	2023. 7. 14.	7월 극값 2위
금산	2위 195.1mm	2023. 7. 14.	7월 극값 1위
서산	4위 208.1mm	2023. 7. 14.	7월 극값 1위
대전	5위 221.8mm	2023. 7. 14.	7월 극값 4위
홍성	1위 182.2mm	2023. 7. 14.	7월 극값 1위
세종	2위 182.7mm	2023. 7. 14.	7월 극값 2위
세종	1위 283.7mm	2023. 7. 15.	7월 극값 1위
부여	5위 164.1mm	2023. 8. 10.	8월 극값 5위
세종	3위 162.9mm	2023. 8. 10.	8월 극값 1위

10분 최다 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부여	3위 23.8mm	2023. 6. 29.	6월 극값 3위
세종	3위 19.4mm	2023. 7. 10.	7월 극값 1위
세종	2위 21.6mm	2023. 8. 22.	8월 극값 2위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세종	3위 45.7mm	2023. 7. 15.	7월 극값 2위
----	-----------	--------------	----------

※ 2023년 충남권(대전·충남) 장마 현황

- 장마시작 ~종료 / 기간 : 6.26.~7.26./31일(평년 6.25.~7.26./31.5일)
- 누적강수량 : 813.8mm(평년 353.9mm)
- 극값 : 보령1위 / 대전, 부여, 금산 2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3. 8.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계룡(636), 계룡산(659),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논산(615), 연무(644), 당진(616), 신평(637)
호도(578), 삽시도(609), 대천항(657), 외연도(669), 양화(635), 대산(606), 서천(614), 춘장대(646)
아산(634), 송악(493), 예산(628), 원효봉(694), 성거(617), 창양(618), 경산(691), 근흥(607), 민리포(658)
북격렬비도(229), 태안(627), 안도(666), 옹도(667), 흥북(608), 흥성죽도(610), 서부(645)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